

## 부산시, 외상환자 대응 속도를 높인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외상환자 골든타임 확보, 거점병원 2곳 선정



부산시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외상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모·지정 방식의 지역외상거점병원 제도를 도입하고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외상환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모에 참여한 의료기관 중 센터 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부산형

지역외상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역외상거점병원은 중증 외상환자 발생 시 초기 평가 및 안정화 치료를 담당하는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필요시 권역외상센터와의 신속한 연계를 통해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거점병원은 외상환자 우선 소생실, 전담 인력 운영,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외상환자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시는 2개 의료기관에 대해

기관당 4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외상환자 전담 의료 인력 확보 및 운영을 중심으로 24시간 외상환자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소방재난본부, 권역외상센터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외상환자 이송부터 치료, 전원까지 이어지는 단계적·연계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이번 운영을 통해 ▲외상환자 골든타임 확보 ▲응급환자 이송 지연 및 병원 미수용 감소 ▲권역외상센터 과밀 해소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완화 등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소방, 의료기관, 권역외상센터 간 협력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 화원초에 달성군 ‘최대’ 풋살장 상륙해

달성군, FIFA 규격에 지붕까지! 학교복합시설 ‘화원 천내 체육시설’로



대구 달성군의 한 초등학교 내 유휴 공간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심 속 스포츠 허브’로 재탄생했다.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2일 화원초 학교복합시설에서 ‘화원 천내 체육시설’ 개장식을 갖고, 이달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 가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장식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비롯해 지난해 군이 인수 창당한 달성군유소년 축구단 선수와 학부모,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문을 연 복합시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화원초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내 남는 부지를 활용해 다목적 체육시설과 공원, 경관형 화장실 등을 설치한 사업이다.

지난 2023년 7월 달성군과 대구시교육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그해 9월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11월 준공 이후 세밀한 점검을 거쳐 마침내 주민 걸로 다다랐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981㎡(약 300평) 규모의 다목적 체육시설인 ‘화원 천내 체육시설’이다.

한윤석 기자

## 바로마켓 경상북도점 4월 4일 개장한다

경상북도는 오는 4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구시 북구 구리로에 위치한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에서 바로마켓 경상북도점을 운영한다.

바로마켓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단계를 줄여 더욱 신선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직거래장터로, 올해로 7년째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74억 원을 통해 방문객 21만 명, 회원 1만3천 명, 매출액 22억 원을 달성하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경북도는 바로마켓 개장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4일 토요일에는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쌀 500g을 증정하고, 쌀 4kg을 1만 5천 원에 특별

판매한다. 5일 일요일에는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즉시 사용 가능한 3천 원 쿠폰을 제공하며, 떡 만들기, 산마늘 (명)절임 체험 프로그램 등 풍성한 즐길거리도 제공한다.

특히, 바로마켓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6차산업 체험관은 매 주 계절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보기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장터로서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찬국 경상북도 농축산유통 국장은 “바로마켓은 단순한 농산물 판매장을 넘어 생산자와 소비자 직접 소통하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믿고 찾을 수 있는 장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윤석 기자

## 울산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 위해 현장점검 실시

봉투 제작사 하마산업 및 공급사 남구공단 잇따라 방문해 긴급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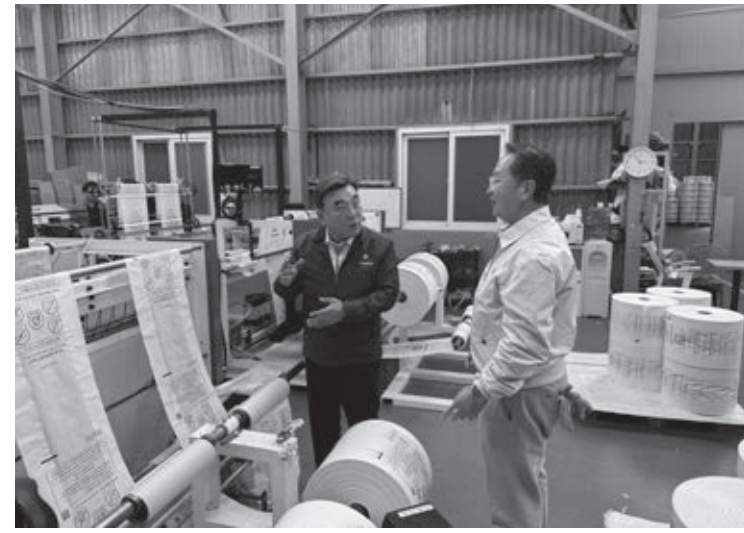
울산시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나프타 가격 상승을 빌미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종량제봉투 사재기와 끼워팔기 등 유통 교란 행위 차단을 위해 현장 점검과 공급 안정화에 나섰다.

울산시는 4월 2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울산 민생경제 대응 긴급 회의’의 후속 조치로 이날 오후 종량제 봉투 제작 및 유통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먼저 이날 오후 3시 종량제 봉투 제작 업체인 ‘하마산업’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울산시는 봉투 제작 공정을 직접 확인하는 한편, 최근 가격 변동이 심한 나프타 등 원료 수급 상황을 정밀 점검했다.

특히 해당 업체에 울산 전역 공급을 맡고 있는 핵심 업체인 만큼 차질 없는 생산을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는 종량제봉투 유통 과정을 점검했다.



공단은 하마산업에서 생산된 봉투를 남구 지역 600여 개 판매소에 공급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유통 과정에서 의 병목 여부와 판매소별 공급 동향을 확인하고 수요가 급증한 지역에는 수시 배송을 실시해 공급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화 방안에 맞춰 지역 내 수급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울산시는 구·군과 제작·공급업체 간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

이호근 기자

## YIDEX, K-방산 수출과 협력의 장 비즈니스 열기 고조

창원 이순신방위산업전 국내·외 방산 관계자 참여 속 실질적 협력 논의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음)는 해군사관학교 및 군항 11부두 일원에서 개최 중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이 2일차를 맞아 기업 수출상담과 기술교류, 협력 네트워킹이 활발히 이어지며 K-방산 비즈니스의 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 개막한 이번 행사는 창원특례시, 해군사관학교, 해군군수사령부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대한민국 대표 방산 기업과 중소기업, 유관기관이 대

거 참여해 첨단 무기체계와 핵심 부품·소재·장비들을 선보이고 있다.

우선 행사 2일차인 4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참가기업, 방위산업 관계기관, 국내외 바이어 등을 중심으로 수출상담, 기술협력 논의, 정보교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등 7개국 12개사 해외바이어를 초청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내 방산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개척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

한 중요한 기회가 장이 마련되었다.

전시부스에서는 고성능·고효율 해상전투 플랫폼인 ‘차세대 구축함’ 전시, 무인체계와 실시간 협업하는 지능형 해상 지원 거점 ‘스마트 배틀십’ 솔루션 소개 등 방산분야의 다양한 기술과 제품이 소개되며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해군의 전력과 기업의 기술력이 한 공간에서 연결되며 K-해방방위산업의 경쟁력과 확장 가능성을 직접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최성룡 기자

## 대구 무주택 청년 이사비 부담 덜고, 중개수수료 지원

매월 125명, 연간 1,000여 명 규모...4월부터 선착순 접수

대구광역시시는 취업과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규모는 매월 최대 125명씩, 연간 1,000여 명에게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타지에서 대구시로 전입했거나 대구 내에서 이사 후 전입입고를 마친 19세~39세(1987년~2007년생) 무주택 청년세대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1억 5,000만 원 이하 전·월세 거주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대구시는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정식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비주택 거주 청년들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중개보수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오는 4월 6일부터 대구청년커뮤니티

포털 ‘젊프’ 또는 대구시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다음 달 20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해 제공되며, 중앙부처나 타 지자체의 유사사업 수혜자, 부모 소유 주택 임차인,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윤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사업이 잦은 주거 이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대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는 4월 6일부터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또는 대구시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청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윤석 기자

## 경남 ‘우수 브랜드 쌀’ 선발 명품쌀 경쟁력 강화 나서

경상남도는 경남 쌀의 품질 고도화와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경남 우수 브랜드 쌀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선발 절차에 돌입했다.

경남도는 최근 각 시군에 평가 계획을 안내하고, 오는 4월 20일까지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도내를 대표할 우수 브랜드 쌀을 추천받을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여러 품종을 섞지 않아 맛과 품질이 일정한 ‘단일품종’ 브랜드 쌀만을 대상으로 한다. 품종마다 다른 특성을 유지해

경남 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품질 관리가 어려운 혼합미는 제외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심사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4단계 정밀 검증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까지 지 않은 깨끗한 쌀알인 ‘완전립’ 비율 등 14개 항목의 외관 품질을 평가하고, 품종검정지정기관은 유전자 분석으로 다른 품종이 섞인 정도(품종 혼입률)를 확인해 순도를 측정한다.

또한 식품 분야 전문 연구기관은 밥의 모양과 찰기 등 실제 맛을 분석하는 식미(食味)를 평가하며, 도는 계약재배와 법규준수 등 브랜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한다.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브랜드 쌀에는 도지사 인준패가 수여되며, 상품 포장재에 선정 내역을 표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아울러 홍보와 판촉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홍영성 경남도 스마트농업과장은 “철저한 검증으로 발굴된 경

남 명품 쌀이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홍보와 마케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도내 생산 농가와 브랜드 운영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는 2일 제64회 진해 균형제 현장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 창원시와 합동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분리배출 요령 안내와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관광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최성룡 기자